

재계 '백기사' 활용 외부자금 동원 가능성

박삼구 회장 금호산업 인수자금 마련 어떻게

25일 '칸서스'에 금호고속 매각...인수자금 활용은 불가 재계 재무적 투자인맥 많아 자금조달 무난 할 듯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금호산업 인수 매수권 계약 체결로 금호그룹 재건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이제 금호산업 인수대금(7228억)을 어떻게 마련할지 박 회장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인수대금 마련을 위한 전략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장에서 유력한 자금 출처로 꼽혔던 금호고속 매각대금은 금호산업 인수에 활용할 수 없게 되면서 외부 자금을 동원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금호고속 3900억원에 칸서스에 매각했지만 자금 활용 못해=금호그룹 계열사인 금호터미널은 지난 25일자로 자회사 금호고속 지분 100%(주식 100만주)를 칸서스HKB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공시

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3년만에 되찾은 '모태기업' 금호고속을 석달만에 매각한 것이다. 칸서스HKB는 칸서스자산운용이 금호고속 인수를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이다. 처분 금액은 3900억원으로 주식 처분일은 10월2일이다. 금호터미널 또는 금호터미널이 지정한 자가 거래 종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 3개월안에 되살수 있는 조건이다.

이에 대해 금호산업의 주주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박 회장 측에 "금호산업 인수자금 마련에 계열사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금호터미널로 귀속되는 금호고속 매각대금은 금호산업 인수에 활용할 경우 신규 순환출자 이슈가 발생하는 데다, 배임 논란까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도 "금호고속 매각대금은 금호터미널의 차입금을 상환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며 채권단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금호산업 인수자금을 오롯이 혼자 마련할 수밖에 없게 됐다. 박 회장은 지난 24일 채권단과 금호산업 인수에 관한 "현재도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재무적 투자자들이 있다"며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7228억원 대부분 외부 조달...그룹에 부담 '우려'=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두 가지다. 우선 박 회장이 남겨받은 금호산업 지분을 담보로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권의 반응은 냉랭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요 은행들이 채권단 일원으로 포함되어 있어 돈을 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며 금호산업과 관련된 자금 지원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곳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박 회장 측도 이자를 부담할 여

력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방안은 외부 재무적투자자(FI)를 끌어들이거나 재계에서 '백기사(white knight)'를 찾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박 회장의 인맥이 상당해 이같은 자금 조달 방식은 성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호고속을 인수한 칸서스가 FI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수의 기업들이 백기사 후보로 마하평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주력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이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금호타이어가 노사 분규를 겪는 등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룹 오너가 거액을 외부에서 빌려오는 것은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채무자는 박 회장이지만 장기적으로 그룹 전체가 채무 상황에 동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그동안 그룹 정상화를 위해 인내해 준 3만여명의 임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며 "금호산업 인수를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그룹이 국가경제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게 남은 여생을 다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분양 풍년

대방·부영 등 연내 3801세대

추석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인 가을 분양 성수기를 맞아 지방 혁신도시에 아파트 공급이 이어지는 등 지역 물량이 풍성해지고 있다.

29일 부동산114 및 업계에 따르면 연내 나주혁신도시 등 전국 혁신도시에서 아파트만 총 3000가구가 넘는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이 대거 유입돼 최근 부동산시장의 '블루칩'으로 꼽힌다.

나주혁신도시에서는 10월께 대방건설이 C3·B16블록에 '대방노블랜드 1차' 765가구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전용 84~116㎡형 765가구 규모다. 이미 인근인 광주 남구(79.6%)와 서구(77.7%)가 전세가율이 80%에 육박할 정도로 임대 물량은 귀한 대접을 받을 전망이다.

부영도 혁신도시 내 B1·B6블록에 각각 1478가구, 1558가구를 연내 공급

할 예정으로 분양시기를 조절하고 있다.

이에 앞서 양우건설은 최근 나주혁신도시 인근 남평 강변에 총 1700여 세대의 브랜드 타운 '나주 남평 양우내안 리버시티'를 성공적으로 분양했다. B1블록에 자리한 '나주 남평 강변 도시 양우내안 리버시티 1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10~23층, 8개 동으로 총 835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59㎡ 264가구, 72㎡ 180가구, 84㎡A 174가구, 84㎡B 90가구, 전용 84㎡C 127가구 등의 중소형으로만 이뤄졌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혁신도시 초기에는 학교, 도로, 상가 등 기반시설과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불편함이 있었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7부 능선을 넘어지면서 생활 편의시설 확충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나주혁신도시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이전하면 계획된 16개 공공기관이 전이 마무리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추석 선물세트 실적 '뒷걸음'

광주신세계 매출 전년비 -1.9%, 롯데백화점 -3.5%

광주지역 백화점의 올 추석 선물세트 판매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대량 구매가 줄고 통조림세트, 건강보조식품세트 등 저가 가공식품의 온라인 주문이 늘어난 것도 매출 저하를 부추겼다.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유신열)이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2015 추석맞이 선물세트 판매전'을 진행한 결과, 지난해 추석 판매 기간(8월 22일~9월 5일) 매출이 역성장(-1.9%)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백화점광주점도 지난 7일~25일까지 19일간 진행한 '추석 선물세트 판매' 실적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추석 선물세트 판매기간(8월 19일~9월 6일)에 비해 -3.5% 역성장했다.

이들 지역 백화점의 추석 대목 역신장은 인기 품목인 건강식품과 통조림 등의 판매가 저조했기 때문이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의 경우 참치, 스펀 등의 통조림세트는 -19.1%, 건강보조식품세트는 -10.9% 등으로 상당 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백화점광주점은 같은 품목은 -6%였고, 수산물 세트 또한 어획량 감소로 인한 가격 인상으로 쿨비 및 수산물 세트 수요가 줄어 약 -13%의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들 백화점은 마트나 인터넷을 통

한 건강식품과 통조림세트 구매가 늘고, 금호타이어 파업 등 지역 기업들의 잇단 파업 여파로 기업체의 선물 대량 구매도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고가와 쿨비 등 전통적인 명절 선물의 소비는 늘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추석 선물세트 판매 지난해에 비해 정육세트가 14.1%, 오일 등 조미료세트 9.3%, 쿨비세트 7.9% 등으로 큰 폭의 신장세를 보였다.

롯데백화점광주점의 정육세트 판매도 13%가량 매출이 올랐고, 외인을 비롯한 주류 상품군 또한 5% 이상 신장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7	8	20	29	33	38	9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2,708,173,188				6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2,080,254				52
3	5개 숫자 일치	1,389,520				1,949
4	4개 숫자 일치	50,000				93,078
5	3개 숫자 일치	5,000				1,531,364

수출유망 기업 신청 접수

광주·전남중기청 10월12일까지

광주·전남중소기업청이 수출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지정·육성하기 위해 10월12일까지 2015년도 하반기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출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유망기업으로 지정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코트라(KOTRA) 등 23개 수출지원 유관기관을 통해 각종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은 수출지원기관 우대지원 외에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활용 효과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남쌀 애용해 주세요" 전남농협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 직원들이 29일 호남고속도로에 광주요금소에서 귀경 운전자에게 쌀을 나눠주며 전남쌀을 홍보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올 경제성장률 2.7% → 2.4%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6월에 전망했던 2.7%에서 2.4%로 0.3%포인트 낮췄다.

한경연은 29일 'KERI(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15년 3분기' 보고서에서 이같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뒤 내년 성장률도 2.6%

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연이 올해에 이어 내년 경제성장률을 2%대 중반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고령화·부채부담 등 구조적인 소비부진 요인 지속 ▲중국 성장 둔화와 위안화 절하 등 중국 경제 불안에 따른 수출환경 악화를 꼽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각각

0.8%, 1.5%로 제시했다. 국내 총수요 부진이 해소되지 않아 저물가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경상수지는 수출입 동반 부진에 따른 '불황형 흑자'가 이어지면서 올해와 내년 각각 1천54억 달러, 1022억 달러의 큰 폭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출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남성 의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27~45세 편사, 감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성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42세 스태우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남성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신 여성' 희망 31~5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10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www.dvtc.co.kr

초간단, 초간편! 물관리 자동화의 희소식!!

(주)대영 세계 최초 맞춤형 원격조정 MAS시스템 개발성공

기존 인터넷 회선 사용자의 PC에 CD만 넣으면 프로그램 연결완료

인터넷 1회선 MAS

통합관리실 프로그램 연결

- 현장 상황 CCTV
- 안내방송
- 기계동작소리 청취
- 상태감시
- 계측 및 제어

설치 가능 장소

- 필름장
- 배수장
- 양반장
- 배수갑문
- 양수장
- 저수지
- 골프장
- 상하수도

특장점

- 시스템간의 쉬운 호환
- 일반업체가 케이블만 연결하면 공사완료
- 쉬운 유지관리와 비용절감
- 낙뢰, 통신두절시 자체 차단 및 복귀로 24시간 365일 관리 OK

NAVER 물관리자동화 | DJM 물관리자동화

daeyoung (062) 670-0300